



KOSPI, 단기 반등 가능성

1. KOSPI, 계단식 하락 구조 형성 중

- 지난 7월 이후 하락 과정에서 지지대가 저항으로 전환되면서 계단식 하락 구조 형성. 계단식 추세는 안정적인 흐름이라 쉽게 변화하지 않음
- 지난 8월 저점대가 3,050pt 수준에 존재해 반등 시 이 가격대를 단기 상승 목표로 볼 수 있음
- 60일 이격도 92% 하회하는 수준까지 하락 후 반등 시 경험적으로 5%를 넘기기 어려움. 또한 바닥 형성 과정에서 수차례 등락 있을 수 있어 추세 상승보다는 단기 반등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

2. KOSDAQ 종합지수, 120일 이평선 이탈 확인

- KOSDAQ 종합지수, 작년 4월 120일 이평선 이탈 후 처음으로 동 이평선 이탈 후 낙폭 확대. 8월 저점대도 하향 이탈
- 60일 이평선 기준 이격도 90% 하회하는 수준까지 하락한 후 반등. 낙폭 과대 국면으로 단기 반등 이어질 가능성 높음
- 장기간 120일 이평선 상회 후 이탈이므로 반등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 높음. 과거 장기간 상승세 형성 후 단기 급락 과정에서 유사한 패턴 보임

3. 중요한 분기점에 도달한 미국 증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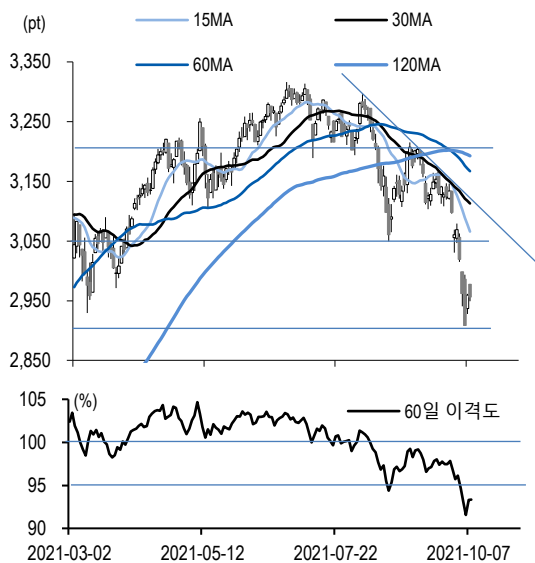
- S&P500지수, 120일 이평선 이탈 후 반등 중 60일 이평선 지지력 확인해야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음
- NASDAQ종합지수, 2, 4월 고점대에서 반등 중. 이 가격대 이탈하면 장기 상승 추세 중단 가능성 높아질 전망

1. KOSPI, 계단식 하락 구조 형성 중

KOSPI는 7월 초 이후로 하락세가 진행되면서 계단식 하락 구조가 형성된 모양이다. 3,200pt 수준에서 7월 저점대가 형성되고, 8월 중에 그 지지대를 이탈하고 다시 3,050pt 수준에서 반등했고, 3,200pt의 저항 확인 후 2,900pt 부근까지 하락하고 반등 중이다. 계단식 추세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쉽게 추세가 바뀌지 않고, 추세가 변하더라도 횡보를 하면서 시간을 두고 변하는 경향이 있다. 기존의 패턴이 유지되면 3,050pt 수준까지 반등 후 다시 하락할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을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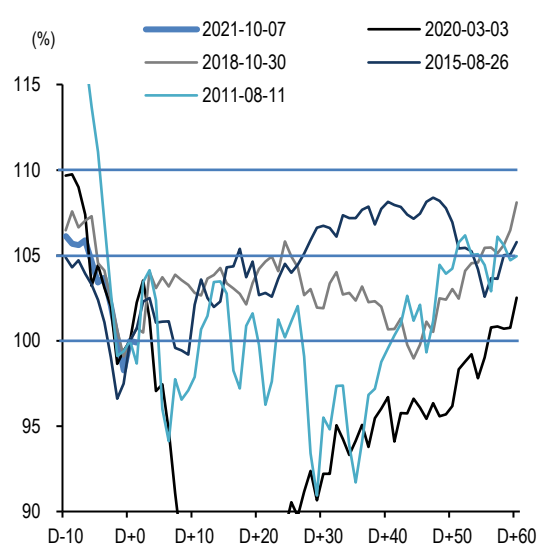
한편 KOSPI의 60일 이평선 기준 이격도는 최근 91.56%수준까지 하락 후 반등 중이다. 10월 7일에는 3일 이평선도 회복해 과매도 국면에서 반등 가능성이 높은 모양이다. [차트 2]에서 2010년 이후 60일 이격도 92% 도달 후 3일 이평선 회복한 시점을 100으로 이전과 이후 움직임을 정리했다. 2020년 3월과 같은 중요한 이슈(코로나 대유행)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바닥권을 형성하지만 단기간에 5%이상 상승하는 경우는 드물고 단기 등락을 통해 중장기 바닥권을 형성하는 모습을 주로 보였다. 따라서 추세적 상승 보다는 단기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, 2,900pt 수준에서 바닥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.

[차트1] KOSPI 일봉과 60일 이격도, 계단식 하락 구조 형성 하면서 중기 하락세 진행 중



자료: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2] 60일 이격도 92% 하회 후 처음으로 3일 이평선 회복한 시점 100으로 가정, 해당 시점 전후 KOSPI 흐름



자료: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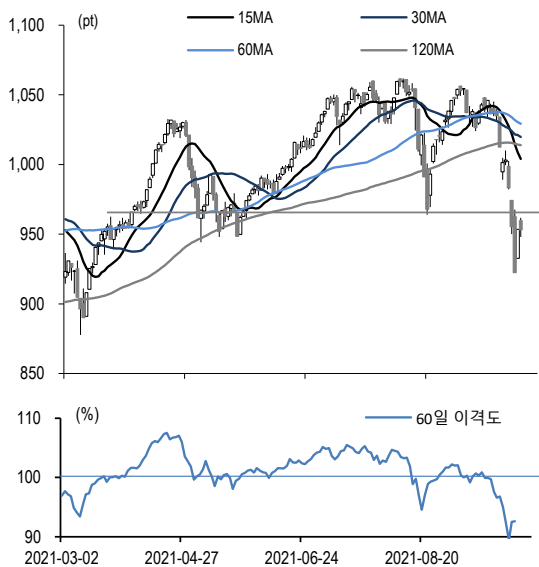
2. KOSDAQ 종합지수, 120일 이평선 이탈 확인

KOSDAQ 종합지수 역시 장기 추세의 변화 가능성이 부각된 상황이다. 작년 4월 120일 이평선 회복 후 상승세가 진행되면서 일시적으로 이탈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이탈 후 하락세가 지속된 경우는 처음이고 이미 120일 이평선의 방향도 하락 전환된 상황이다.

60일 이평선 기준 이격도가 90%아래로 떨어진 후 반등하면서 3일 이평선을 회복해 단기 반등 국면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. 일반적으로 KOSDAQ 종합지수의 60일 이격도가 90%아래로 떨어진 후에 회복하면 반등 국면이 몇 주 이어지고 중장기 바닥권을 형성하는 경우도 많다. 그러나 지금은 조정 국면이 충분히 진행된 상황이 아니라 장기 상승 후 처음으로 의미 있는 조정이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저점이 중장기 바닥권이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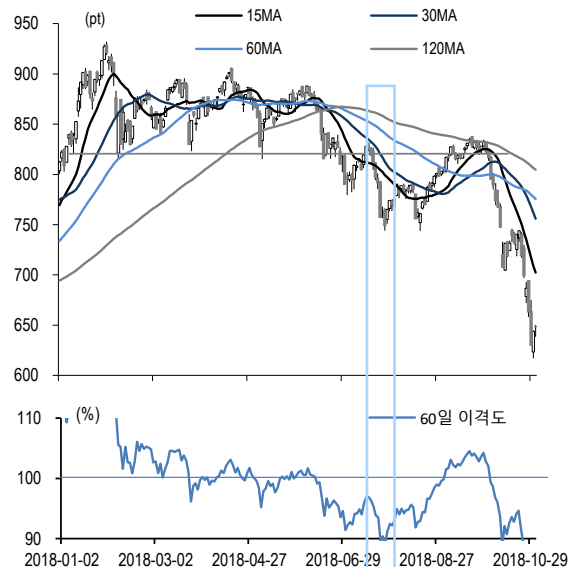
[차트4]에서 2018년 고점대 형성 당시를 사례로 들었는데, 7월 중에 이격도가 90%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반등 국면이 진행되었지만 결국 120일 이평선이 저항으로 작용했다. 2015년, 2009년 등 장기간 120일 이평선 상회 후에 이탈한 경우 비슷한 패턴을 보여 이에 대한 참고가 필요하 것이다.

[차트3] KOSDAQ일봉, 최근 하락 과정에서 이전 저점대 이탈. 과매도로 반등 가능하지만 단기 반등에 그칠 전망



자료: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4] KOSDAQ 일봉, 2018년 120일 이평선 이탈 후 과매도권에서 반등했지만 120일 이평선 저항으로 하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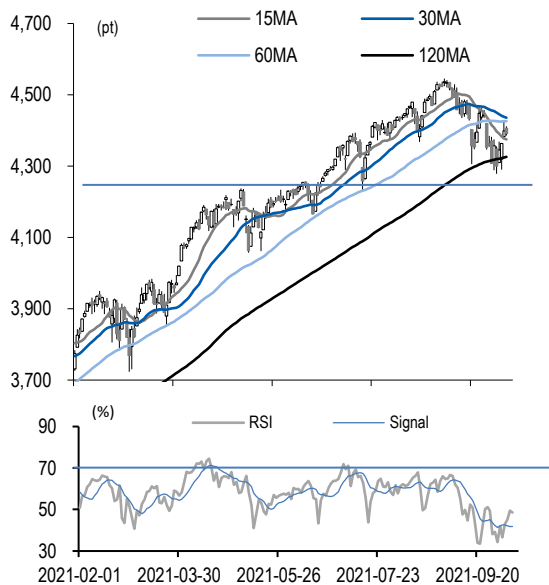
자료: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3. 미국 증시, 중요한 분기점 도달

한국 증시에 비하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주요 지수들의 흐름도 경계 수준에 도달한 모양이다. S&P500 지수는 작년 5월에 120일 이평선을 회복한 후 9월 30일 이전까지 증가 기준으로 단 한 차례도 120일 이평선을 이탈한 적이 없다. 물론 이번에도 일시적으로 이탈 후에 다시 반등 국면 진행 중이지만, 장기 상승 후 처음 120일 이평선을 이탈한 점은 중요한 경계신호라 할 수 있다. 반등 과정에서 60일 이평선이 저항이 되고 있는데, 동 이평선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지지대로 확인되는 모습을 보여야 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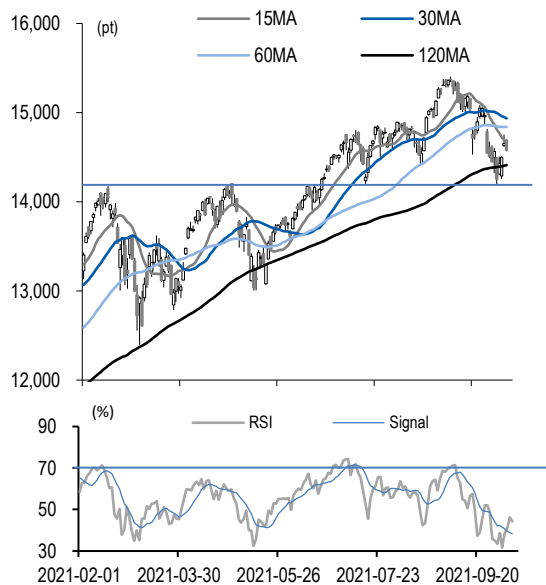
NASDAQ종합지수는 낙폭이 확대되면서 2, 4월 고점대에 도달 후 반등 시도 중이다. 작년 3월 저점 형성 후 반등 과정에서 작년 9,10월, 올해 2~5월 등 중기적인 조정이 있었지만 돌파된 이전 고점대를 이탈하지 않는 수준에서 조정이 마무리 되고 장기 상승세가 이어졌다. 이번에도 2, 4월 고점대에서 지지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만약 현재 가격대에서 반등이 제한되면서 최근 저점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 장기 상승 추세의 변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. 따라서 미국시장은 향후 단기적인 주가 흐름이 중장기 추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.

[차트5] S&P500 일봉, 120일 이평선 이탈 후 반등 중. 60일 이평선이 지지대로 확인되는 과정 필요.



자료: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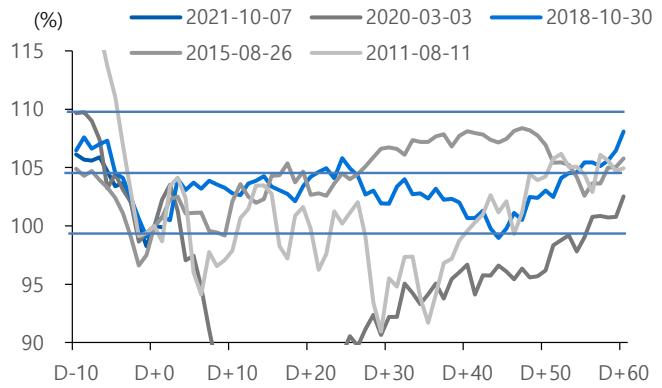
[차트6] NASDAQ 종합지수 일봉, 2, 4월 고점대가 지지대로 작용. 이탈 시 장기 상승 추세 중단 가능



자료: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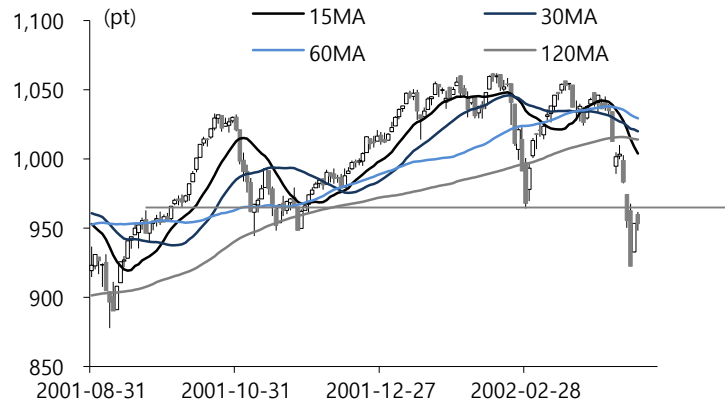
Key Chart

60일 이격도 92% 하회 후 처음으로 3일 이평선 회복한 시점으로 100으로 가정, 해당 시점 전후 KOSPI 흐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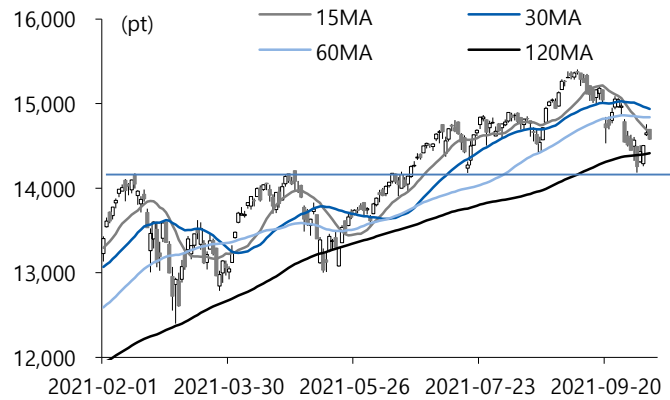
자료: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KOSDAQ일봉, 최근 하락 과정에서 이전 저점대 이탈. 과매도로 반등 가능하지만 단기 반등에 그칠 전망



자료: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NASDAQ종합지수 일봉, 2, 4월 고점대가 지지대로 작용. 이탈 시장 상승 추세 중단 가능



자료: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